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나눠 주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제게 큰 도움을 주신 아산재단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올라와 살다가 다시 고향인 나주로 내려와 정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사를 다니다보니 친구도, 지인도 없었지만 고향에서 가정을 이루고 작은 가게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폐업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혼이라는 불행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배달 대행까지 하면서 애썼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한밤중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바지에 불이 붙어 있었고, 황급히 불을 꺾지만 이미 등과 양팔, 엉덩이까지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화상 부위가 넓어서 피부이식 수술을 하고 두 달을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 제게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는 중에도 늘어나는 병원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비에 두 달 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퇴원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식한 피부가 자리잡기까지 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과에 따라 2차, 3차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걱정은 나날이 더 커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아산재단이 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니 드디어 편안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 어머니의 간병을 받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신 여러 분들의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아산재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평화 드림**

